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문화
예술분야
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례

01

역사와 사람, 과거와 현재를 잇다

• 김지연 고궁해설가 ... 05

02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예술 작품을 기획하다

• 윤태건 더 톤 대표 ... 17

03

이야기라는 낯선 세계 안에 사는 인물을 연기하다

• 원태희 독립영화 배우 ... 27

04

숨어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다

• 강동규 루프탑 바머스 운영자 ... 39



05

삶의 아픔과 기쁨을 노래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다

• 윤성기 밴드 휴먼레이스 보컬 ... 51

06

뮤지컬로 인해 행복해지고, 뮤지컬에서 꿈을 찾다

• 백승현 공연기획사 블랙필 대표 ... 63

07

찰나의 순간을 담아 영원히 남기다

• 이창수 사진작가 ... 75

08

세상 사람 모두를 예술가로 만나다

• 류재훈 소프트 유니브 대표 ... 87

문화
예술분야
1



01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며 역사를 전하는 고궁해설가

역사와 사람, 과거와 현재를 잇다



고궁해설가

김지연

- **누구의 이야기?** 미술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고궁해설가가 된 사람

- **하는 일은?** 덕수궁을 찾은 사람들에게 문화재를 해설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7살에 시작하여 10년간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음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 휴학하고 4개월 동안 대학생 서포터스 마케터로 활동 → 대학 졸업 → 항공사에서 5년 정도 근무 → 항공사를 그만두고 휴식 기간을 가지던 중에 멘토 윤운중 선생님(아트 커뮤니케이터)을 만남 → 현재 덕수궁에서 고궁해설가로 일하고 있음

- **장래 포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 **그의 한마디** 바쁘게 사느라 각자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는 모두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김지연

고궁해설가



덕수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옛 정취를 느끼고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이다. 그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아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어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사람들 중에는 보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과 이야기에 대해 듣고자 해설가를 따라 거니는 이들도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해설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즐거움, 슬픔, 안타까움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한데 뒤섞이는 그곳 덕수궁에는 고궁해설가 김지연 씨가 있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회성 좋은 아이였어요.

지연 씨는 언젠가 자신이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미술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미술을 좋아했다. 7살 때부터 미술을 가르치는 화실에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어린이 미술학원과는 달리 구도와 명암, 색조 등 미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곳에서 체계적인 미술 수업을 받으며 자랐다.

“어린이가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른 대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탁한 게 무슨 수채화냐.’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림물감 24색을 다 섞어가면서 무

슨 색으로 바뀌는지 칠해보기도 했죠. 24색 곱하기 24색을 색깔이 연하고 진해지는 단계를 볼 수 있도록 칸칸이 칠해보기도 했어요. 스케치 북 몇 권에 걸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보니 어느 순간 농담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미술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고집이 세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 마는 성격이었다는 그녀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말썽도 많이 피웠다. 비디오나 만화책을 보고, 군것질을 하러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녀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녀가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데 집중하던 그녀는 고3이 되어서야 미뤄두었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시라는 것이 공부해야 하는 범위도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다 짜놓은 판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도대체 뭘 이뤄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으려고 핸드폰도 없애고 부모님을 줄라서 학원에 다니며 1년간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어요.”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방향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지연 씨는 패션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학과처럼 디자인 계열의 전공학과를 원했지만, 합격 소식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경영학과 쪽에서 들려왔다. 재수를 원하지 않았던 그녀는 그렇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수학에는 영 재능이 없던 그녀에게 숫자를 다루야 하는 경영학과는 맞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졌고 그녀는 대학에 들어온 첫 번째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방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게 맞는 다른 길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하고 시험보고 그랬어요. 그러니 학점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대학에 한 학기를 지우고 새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다운복학제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한 학기는 재수강하면서 학점을 채우고, 한 학기는 해외 인턴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대학을 1년 더 다녔어요.”

전공이 맞지 않아 졸업을 하기까지 4년 동안 학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녀에게 미술은 큰 도움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다니는 대학은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으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 그녀는 패션드로잉과 같이 그녀의 미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연 씨는 주로 백화점, 항공사, 보험사 같은 서비스 직종의 회사에 원서를 넣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두려움이 없었던 그녀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았던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면접에 강했던 그녀는 면접 비중이 높았던 항공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항공사에서는 공채로 채용된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콜센터와 공항에 배치하여 처음 몇 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그중 공항으로 가게 된 그녀는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게 맞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의 서비스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었어요. 하루에 200명 이상의 승객을 만나 ‘안녕하세요.’, ‘여권 주세요.’ 하며 자리를 배정하고 보내는 일을 거의 매일 기계처럼 반복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을 만나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 근무를 마친 그녀는 본사 부서 중 하나인 IT지원부에 배치되었다. IT지원부는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부서였다. 시스템 관련 일은 A라는 출발점이 B라는 도착점으로 이어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이어서 늘 가능성이 열려있고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좋아하

는 성향의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다.

“사실 일 자체가 힘들거나 업무량이 과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 사람들과 사이도 좋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버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스스로 한심한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성실하게 일하던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동료들은 그녀의 결정에 놀라며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료들의 설득에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동료와 상사는 존경할 만한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녀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변에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주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5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윤운중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29살의 나이로 새로운 일을 찾기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지연씨는 남들보다 늦은 출발에 겁먹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끼며,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에 어린 시절부터 흥미가 있었던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미술과 관련된 일에 대한 정보를 찾던 그녀는 미술해설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또 미술해설가로 활동 중이던 윤운중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윤운중 선생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1000번 다녀온 남자로 유명한 분이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의 명성 때문에 만나 뵈게 되었는데, 만나 뵈수록 선생님의 인품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잠잘 곳, 먹을 밥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거침없이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던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의 저는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미술해설가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술해설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정규직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고궁해설가였다. 고궁해설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바라던 일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하여 면접을 보았고, 한 번의 고배를 마신 후에 그토록 바라던 고궁해설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윤운중 선생님은 고졸 출신으로 30대 중반까지 20년 정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방향 끝에 미술해설가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분이다. 2015년 2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큰 공연장에서 미술 작품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해설하는 ‘아르츠 콘서트(Arts Concert)’를 여러 차례 선보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고궁해설가가 된 지연 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해설을 듣기 위해 고궁을 찾는 사람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고 싶은 어머니, 역사에 관심이 많은 40~5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하는 일의 좋은 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집중하는 시간이 5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만의 방법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관심을 보여주면 눈동자를 반짝여요. 그리고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눈에 띄고 싶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자신이 하는 해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즉각적인 반응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고궁해설가의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이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녀는 반복적인 일을 하며 그 과정에서 늘 비슷한 결과를 얻을 뿐이었지만, 고궁해설가로 일하면서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물론 잘해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일의 마무리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

만, 해설이 끝나면 그녀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고마움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녀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다.

“해설을 끝마치고 나니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건강이 좋지 않아 외출을 하지 못하시다가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연 씨가 생각하는 고궁해설가의 역할은 역사 공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외운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덕수궁에 찾아와 자신의 해설을 듣는 사람들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멘토가 되어주셨던 미술해설가 윤운중 선생님께서로부터 그러한 마음가짐을 배웠다는 그녀는 늘 잊지 않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다들 바쁘게 사느라 각자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말이라도 가끔 고궁을 찾아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궁해설가 일은 지연 씨에게 있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해설을 하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질문을 통해 그녀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하는 해설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저는 특히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덕수궁과 관련된 인물 중에 고종황제의 외동딸인 덕혜옹주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길게 하는 편이에요. 한 시대의 역사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을 알아가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언젠가 만들고 싶다는 그녀는 따뜻한 시선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덕수궁을 찾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02

주변 환경과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는 공공미술 기획자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예술 작품을 기획하다



더 톤 대표

윤태건

- **누구의 이야기?** 대중을 위해 공공장소에 다양한 작품을 설치하고 기획하는 공공미술 기획자

- **하는 일은?** 공공미술 전문 컨설팅 회사 <더 톤(THE TON)>을 운영하며, 새로운 공공 전시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입학 및 졸업 → 삼성문화재단 공공미술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인턴,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 대학원 수료 → 3년 반 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 → 카이스 갤러리 6년 동안 근무 → 독립 후 공공미술 전문 컨설팅 회사 <더 톤(THE TON)> 설립

- **장래 포부**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더 톤>(THE TON) http://blog.naver.com/theton_style

윤태건

더 톤 대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에는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커다란 거인 조각이 있다. 미술가 겸 조각가인 조너선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가 흥국생명의 의뢰를 받아 만든 작품 ‘해머링 맨(Hammering Man)’이 바로 그것이다. 흥국생명은 노조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2002년 당시 노동자를 상징하는 해머링 맨을 본사 앞에 설치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후 광화문 일대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해머링 맨’은 공공미술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공미술이란 말 그대로 공공의 장소,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말한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에서만 감상 가능한 일반 미술과는 달리 공공미술은 갇힌 공간을 벗어나 누구

나 감상할 수 있는 진보된 형태의 미술로도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있다.

작가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공공미술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을 하며 공공미술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공미술 기획자 윤대건 씨를 만났다.

친구들보다 낙서를 잘 그리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시절 그림을 그리면 곧잘 상을 받곤 했던 태건 씨는 자신에게 미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실력이 그저 친구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안정적인 직업군을 원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진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그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시작되었다. 과거의 추억 속에 묻어 놓았던 미술에 대한 갈증이 살아난 것이었다. 부모님은 다시 미술 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의 의지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에게는 큰 지원군이 있었다.

*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1930년대 서구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 법(Percent for Art)’에서 유래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바로 어릴 적 미술부 활동을 했던 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큰누나였다.

“재수를 하면서 진로를 고민할 때, 누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본인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무난한 다른 전공을 공부해야 했거든요. 다시 실기 준비를 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미술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합격하여 원하던 대로 미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공공미술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태건 씨의 활동은 수업보다 학보사 활동에 집중되었다. 덕분에 학점은 낮았지만 후에 그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1995년 대학 졸업 후, 낮은 학점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한 그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다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삼성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팀을 만들며 3개월간 단기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것이었다.

“첫날은 하루 종일 복사만 8시간을 했어요. 그 후로도 3일 동안 복사만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복사하러 온 건가?’ 싶더라고요. 복사를 하는 도중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것을 복사하는지

그 내용을 봤는데, 당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소장품들에 대한 약력 카드였어요. 그 이후 자료를 만들고, 오타 확인하고, 자료 찾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죠.”

일을 하며 그는 학교에서 미학이나 미술사를 배우며 접한 미술과 현장에서 본 미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미리 접해 보았던 대인관계나 사회협력 등의 공부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미술과 대학원 준비를 하며 생각한 미술이 사회생활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그는 자신이 이 일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산 회사 측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그에게 인턴을 제의했다. 인턴이 끝난 뒤 그는 계약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정규직이 되어 그곳에서 3년 반을 일했다. 일을 하면서 대학원 수료까지 했지만 결국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그가 다음으로 향한 직장은 공공미술 분야를 확장하기 시작한 신생 갤러리였다.

보통 갤러리 전시는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작품에 맞는 작가와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판매를 하면 되지만, 공공미술은 주문 제작처럼 이루어진다. 공간이 나오고, 예산이 먼저 나온 것에 맞춰서 작품이 들어가야 하며, 공간과 작가, 작품의 예술적 형태도 보존해야 한다. 직원이 총 네 명뿐이던 작은 갤러리의 사장은 공공미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모르는 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모르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후에 그의 대표작이 되어 커리어를 형성해준 작품 ‘해머

링 맨' 역시 갤러리에 있을 당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 걸 생각하면 그의 노력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공공미술 기획 중심의 회사 <더 톤>을 만들었죠.

6년 후, 태건 씨는 메이저 갤러리로 부상한 회사에서 나와 자신의 회사 <더 톤(THE TON)>을 설립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가 삼십대 중반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내 일을 해보고 싶어진 거죠. 40대가 넘어가면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 되니까요. 그때는 부양가족도 없었고 한 번쯤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 생각했어요.”

그는 친구 오피스텔에 책상 2개를 놓고 디자이너 겸 경리 직원, 조소과를 다니는 직원 두 명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초기엔 직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도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나면서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3, 4년이 지나며 연 매출이 두 배씩 늘어갈 정도로 빠른 성장이었다. 그가 10년간 공공미술 기획 일을 하며 쌓아왔던 신뢰와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된 기획 중심의 작업을 한 것이 비결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품을 진행하는 것은 재밌는데 예술하고 행정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자라는 조각’이라고 해서 2년이 지나고 그 작품이 변화되는 것에 맞춰 보강하고,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보강이 되는 형태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은 1년 단위로 끊기니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예산은 올해 60%가 들어가고 2년 뒤에 20%, 그다음 2년 뒤에 20%로 산정해 뒀는데 올해 것만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공사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니까요. 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야 하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공공미술 기획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공공미술 기획자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라고 했다.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쪽보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도시의 문화적 풍경을 바꿔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으로 공공미술 분야는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 전문가들에 대한 배려, 행정 분야에서의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스스로 최소 10년 정도는 놓고 해보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 분명히 보상이 따르는 직종이에요.”

그는 공공미술 기획자로서 필요한 능력으로, 트렌드를 알고 종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예술품과 조각 따로, 건축과 조경, 그걸 둘러싼 환경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트렌드를 알고 종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한 작가의 예술 작품 중에서 공공미술에 적합한 요소들을 끄집어내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 도면만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뒤 모두 합치는 스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작가의 작품을 설득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거나 단지 영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태건 씨가 공공미술 업계에 몸을 담은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되었다. 현재 그는 공공미술에 관한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재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예술학과에 진학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어쩌면 내가 그것에 재미를 찾으려 했던 것이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

고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은 바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결국 제 일에서 재미와 적성을 찾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흔히 예술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작자로서의 직업을 생각할 것이다. 만약 본인이 미술을 잘한다고 하면 화가가 될 것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해낼 만큼의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 미술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재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술과는 상관없는 무난한 삶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작가들의 작품을 컨트롤하고 더 큰 의미의 예술 작업을 해내고 있다.

“자신에게 재능이 없고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서, 더 큰 힘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03

연기를 넘어 영화의 전반적인 작업에 도전하는 독립영화 배우

이야기라는 낯선 세계 안에 사는 인물을 연기하다



독립영화 배우

원태희

- **누구의 이야기?** '사진사의 착각'이라는 우연한 계기로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된 독립영화 배우

- **하는 일은?** 시나리오를 읽고 분석하며 주로 독립영화의 등장인물로 연기를 펼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2 때 처음으로 배우의 꿈을 갖게 됨 →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 진학 → 모델센터 모델로 활동 → 단편영화 <라디오 드림스>로 영화배우 데뷔 → 광고와 드라마 촬영 → 처음 들어간 소속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5년간 연기 활동 중단 → 독립영화 배우로 활동 시작하여 이래 다양한 작품으로 활동 중

- **장래 포부** 계속 연기를 하는 것

- **그의 한마디** 배우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원태희

독립영화 배우



독립영화에서 ‘독립’이란 단어는 자본과 배급망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극장에서 오랜 기간 상영을 함으로써 보다 큰 이윤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업영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창작자의 의도가 얼마나 잘 표현되었고, 또 잘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독의 철학과 세계관이 투영되어 만들어지는 독립영화에는 직접적이고 강렬한 표현들이 많아 상업영화와 비교하여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들이 많다.

제34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지옥화(이상우 감독, 2014)>라는 작품으로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어 화제를 모았으며, <백야(이송희일 감독, 2012)>라는 작품으로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원태희 씨는 ‘독립영화계의 하정우’로 통하는 실력과 배우이다. 최근에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과 편집에 이르기까지 직접 전반적인 영화 작업에 뛰어들며 만든 단편영화 <Cinema>로, 2015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기도 했다. 현재 연기를 하며 대부분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는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자기표현에 서툴렀던 매우 소극적인 아이였다.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사진사 때문이었어요.

중학교에 다니던 태희 씨는 교탁 바로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가 그 자리를 원했던 것은 성적에 대한 욕심 때문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에도 옆자리에 앉은 짝꿍과 나누는 몇 마디가 전부였을 정도로 소극적인 아이였던 그는 오히려 선생님과 시선이 마주칠 일이 적은 교탁 앞자리가 편했던 것이었다.

“그 시절 저는 선생님께서 ‘교탁 앞에 나와서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봐라.’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자기표현이 서툴렀던 저는 친구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

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는 공부도 제법 잘했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배우라는 직업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게 된 데에는 아주 우연한 계기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간 그는 포즈를 취해 보라는 사진사의 말에 이런저런 포즈를 취했다. 정자세로 찍어야 하는 증명사진을 찍으며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사진사가 시키는 대로 턱을 꺾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방송국 시험을 보기 전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었는데, 사진사가 그와 그 사람을 착각했던 것이었다.

“그때 사진사가 포즈를 취하는 저를 보면서 배우가 되어 보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배우가 되어 볼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말이에요. 배우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실 것이 뻔하고, 우선 집을 떠나면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다 싶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일단 대학에 들어간 후에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큰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춰서 담임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그렇게 그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갔다.

모델센터에서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감정과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된 태희 씨에게 자신이 걷고 싶은 길과는 무관한 전공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졸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며, 인문학 계열의 교양 수업을 많이 들었다. 군대에 가기 전 1년 동안 그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 에이전시에 내기도 하고 오디션을 보기도 하다가 어느 한 에이전시의 연락을 받고 엑스트라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배우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군대에 다녀온 이후부터였다.

“전역하고 서울로 일찍 올라온 저는 복학하기 전 모델센터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워킹을 비롯해 패션, 메이크업, 재즈댄스 등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에 연기 수업도 있었어요. 물론 전문 연기자를 위한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 연기만 배웠지만, 그 수업을 통해 얼굴로 감정을 표현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연기를 배웠으니 이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를 구하는 웹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오디션을 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그는 첫 단편영화 <라디오 드림스(2004)>에서 만난 스태프들과 인연이 되어 이후에도 몇 차례 단편영화를 찍었다. 각자 다른 작품에 들어간 그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그를 불렀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광고감독을 만나게 된 그는 광고를 찍는 과정에서 매니저를 만나고, 소속

사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얼굴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부모님도 그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외 생활비와 월세는 제 스스로 해결했거든요. 그렇게 졸업까지 열심히 생활하는 저를 보시고 부모님께서도 결과야 어쨌든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인정해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거예요.”

배우 일이 순조롭게 풀리던 때에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배우의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태희 씨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소송에 걸리기까지 했다.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소속사 계약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소속사에서는 매니저와 계약을 하고, 배우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소속사와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역시 그렇게 이중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것이었다.

“배우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소속사에서는 초기에 배우에게 투자한 비용과 매니저의 월급까지 부담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매니저가 소속사를 나가게 되면 배우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투자한 비용을 다시 회수할 때까지 배우를 붙잡아두기 위해 배우와도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속사와 매니저가 갈등을 빚으면 배우까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소속사와 매니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는데도,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어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배우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는 5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야 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는 늦은 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연기는 계속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고민이 거듭될수록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던 그는 독립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광고와 드라마를 찍고 소속사도 생기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부정해 왔지만 저는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화려함을 좇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고민하다 보니 그런 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배우이고, 배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결국 연기를 잘해야 하잖아요. 연기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미 봤던 시

나리오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감독과 시나리오도 만나게 되었지요.”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규모가 작고 예산이 많지 않아 주인공이 극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독립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하며, 태희 씨에게는 극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그는 늘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석하며 연출 의도를 파악했고, 그에 따른 연기뿐만 아니라 의상까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배우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상업영화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독립영화는 그가 배우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최근에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를 비롯해 연출과 편집까지 거의 모든 작업에 참여하며 만든 <Cinema>라는 단편영화로 ‘2015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기도 했다.

“그동안 촬영한 한 작품, 한 작품이 모두 제게 의미가 있지만, 특히 <Cinema>는 저의 영화 인생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작품이에요.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배우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저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화거든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배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누군가

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느꼈을 정서와 슬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연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기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내가 모르는 인물과 세계를 표현하는 일이라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가 되고 싶다면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때로는 생각과 말이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말과 행동 너머에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다보면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배우에게 있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요.

독립영화의 경우 하루에 5~6분, 많으면 7~8분 분량을 촬영하는데, 그 ‘5분’ 혹은 ‘7분’을 위하여 태희 씨는 잠도 그 시간에 맞추어 자고, 밥도 그 시간에 맞추어 먹었다. 배우는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슬픈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 그는 촬영할 장면 속 자신이 맡

은 캐릭터의 상황을 떠올리며 하루 종일 슬피야 했다.

“어머니의 산소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하면, 배우는 감독의 ‘컷!’ 소리와 함께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슬픔의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슬픈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 자신을 가슴 아프게 만들며 괴롭히죠. 그렇게 컷이 바뀌면 촬영하는 장면이 맞추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또 반복해야 해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저 연기를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하는 영화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감독이 먼저 배우에게 연기할 배역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채운 작품을 전체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배역을 맡긴 감독에게서 나름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배우로서의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할 기회로 삼았다.

“그동안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고 제 자신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자주 직면해 온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독들이 저를 찾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아마 지금처럼 제 자신에게도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생각과 정서, 인간의 가슴 밑에 묻어둔 진짜 모습에 대한 탐구의 과정과 그에 따른 작은 결과물들을 계속 세상에 내놓으려 노력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분야
1



04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선도하는 공연 기획자

숨어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다



루프탑 바머스 운영자

강동규

- **누구의 이야기?** '루프탑 바머스'에서의 파티를 기획하는 공연 기획자이자, 인디밴드 '뷰티한섬'에서 만두채플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드러머

- **하는 일은?** 인디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며 음악 공연을 기획하고, 실용음악과의 교수로 드럼에 대해 강의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3 여름방학, 드럼을 전공하고자 결정 → 국내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음악학원에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됨 → 22살에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여 5년간 미국 생활을 함 → 군악대 제대 후, '루프탑 바머스'라는 작업실을 얻게 됨 → 밴드 생활 중 기획한 옥상 파티가 성공한 것을 계기로 공연 기획자로서의 활동을 겸하게 됨 → 드러머이자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게 됨

- **장래 포부** 강원도 양양에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것

- **그의 한마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더 알고 싶다면** '루프탑 바머스' 홈페이지 <http://www.rooftopbombers.com/>

강동규

루프탑 바머스 운영자



파티라고 하면 도심의 널찍한 공간에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대화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홍대에 위치한 일명 <루프탑 바머스>에서 열리는 파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파티와는 사뭇 다르다. 굳이 비교하자면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비긴 어게인>의 한 장면처럼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피자과 맥주와 라이브 음악이 준비된 좁은 아파트에서 즐기던 파티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루프탑 바머스라는 공간의 주인공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드럼을 전공한 드러머이자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공연 기획자인 강동규 씨이다.

미국 유학 시절 그는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뉴욕 친구들의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무작정 파티를 열었고, 그 파티를 시작으로 드러머이자 공연 기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기에 매일 매일이 즐겁다는 강동규 씨를 만나 보았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모두가 드럼이었어요.

중학생 시절 동규 씨는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친구들을 통해 해외의 팝과 록 음악을 들으며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던 그는 교회에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난생 처음 접했다. 그 이후 어깨너머로 조금씩 드럼을 배우던 그는 고3 여름방학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럼’이라는 답을 찾았다. 그는 그날로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전했고, 부모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

“드럼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는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알아보다가 당시 실용음악과를 다니던 두 살 위의 이는 형에게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준비해서 처음 입시에 도전했는데, 함께 입시를 치르는 사람들의 수준과 대학 수준을 보고 좌절했어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때 어머니가 헤화동에

있는 <혜화 재즈 아카데미>라는 음악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악학원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을 못 간 대신 그 학원을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죠.”

그는 <서울 재즈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한 그 1년은 그에게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버클리 음대를 간 프로드러머 선배를 보며 그는 본토에서 드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드럼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하며 2년간 유학을 준비했고, 22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제가 워낙 공부에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에 약했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생활영어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생활영어를 다룬 책들을 3권 정도 사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문장을 외우고 갔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해져서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음악을 배우러 간 것이라 언어보다는 눈과 귀로 소통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5년을 있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옥상에서 파티를 열다 보니 어느새 공연 기획자가 되어 있었어요.

5년 동안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동규 씨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군악대에 소속되어 음악을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작업실을 찾아 흥대로 향했다. 그는 드럼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했는데 대부분 지하실이였다. 마침내 그가 찾아낸 곳은 그래도 위층에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는 그곳, 지금의 작업실 ‘루프탑 바머스’에 자리를 잡았다.

“군 생활을 마치고 나니 음악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밴드에서 동시에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했던 파티들을 떠올렸어요. 이곳에서 파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제 지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한 70명 정도의 관객이 오셨죠.”

첫 번째 파티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공연 기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보고자 결심하게 된 것은 그 다음 해 여름 다시 한 번 파티를 열었을 때였다. 그 후 그는 자연스럽게 기획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밴드들은 파티에서의 공연을 계기로 점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 새롭게 구성한 팀이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뷰티헨십’이다.

“지금은 외부에서 다양한 행사들, 공연들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공연도 기획을 해서 공연하게 되었고요. 강남의 크고 좋은 공연장에서 기획을 할 예정이기도 해요. 저희 밴드 ‘뷰티헨십’은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을 거치다 보니, 이제는 브랜

드를 더 구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브랜드는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공연 기획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기에 달려 있어요.

“공연 기획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구체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분야라고 생각해요. 공연 기획에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기획 부분에서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콘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SNS에 강하거나, 컴퓨터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다루거나, 계산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는 등의 자신들을 홍보해 주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동규 씨는 인디 뮤지션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을 만날 자연스러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공연장에 가서 공연이 끝난 뒤 대화를 청하면, 아티스트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답해주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시도를 통해 아티스트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조연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공연 기획을 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화가이고, 혹은 나는 컴퓨터를 잘하고, 나는 웹사이트를 잘 만들고, 아니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혹은 일본어를 잘하고 그런데, 당신의 예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해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이면 공연 기획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공연 기획은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 기획과는 차이가 있다. 기획사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만 집중된 공연 기획을 하는 반면, 프리랜서로 공연을 기획하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직접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더 많이 듣고 공부하여 개인의 음악적인 철학과 깊이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돈, 시간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참 좋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당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발을 한번 내딛어 보기를 권해요.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연 기획 일은 충분히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해 보세요.

동규 씨는 지금까지 드림을 해오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스스로가 음악을 하면서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는 음악을 하고 싶다며 상담을 청하는 친구들에게 무조건 음악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그는 드러머로서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드림은 연습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요. 스스로를 연습으로 몰아넣어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드러머라고 생각해요. 정말 연주자들은 연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더불어 그는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다양한 장르를 들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디 공연을 많이 다녀보기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음악과 공연을 듣고 보기를 권했다. 스스로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가다 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음악적 경험이 쌓일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꿈을 이루는데에 필요한 안목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공연장을 자주 찾아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공연을 볼 때 유심히 보면 보이거든요. 공연장도 보이고, 공연장의 인테리어도 보이게 되고요. 또 앨범에서 듣던 것과 공연장의 사운드가 달라요. 그런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른지 하고 들어보면, 그 안에 엔지니어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엔지니어 분들이 관리하시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터를 예로 들자면, 그 포스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고 싶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밴드의 성향을 잘 극대화시켜서 보여줬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또한 SNS로 홍보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SNS 홍보를 잘했다면 어떤 것들이 잘한 부분인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그는 공연 기획이야말로 다른 어떤 장르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의 철학을 다듬어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연 기획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페스티벌을 다니며 현장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어보고 싶어요.

“저는 무엇이든 많이 배우려 해요. 특히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가장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거나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은 잘 안하죠. 그리고 진짜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배워요. 공짜로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공짜인 경우에는 배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매일 삶의 순간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당장 입을 옷이 좋지 않아도 행복하다고요.”

자신의 직업이 정말 좋다고 말하는 동규 씨는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인생의 좋은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랐다. 굳이 평생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공연 기획자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한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제 일에 대해 깊이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삶이 행복한 것이구나.’를 느끼면서, 인생에 대한 제 태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예술 안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을 꼭 삶의 가까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강원도 양양에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여름에 그곳에서 놀고 싶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소 예상을 빚나가는 답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파티도 하며,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공간을 기대해 본다.

문화
예술분야
1



05

밴드 휴먼레이스의 보컬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

삶의 아픔과 기쁨을 노래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다



밴드 휴먼레이스 보컬

윤성기

- **누구의 이야기?** 대학생 시절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에서 위로받고 인생의 의미를 찾은 음악가

- **하는 일은?** '휴먼레이스'라는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며, TV 강연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등에서 강연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입학 → 동아리 활동을 하며 독학으로 기타를 배움 → 대학졸업 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다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할 생각으로 집을 나옴 → 1년 동안 노래 연습에 집중하다가 4인조 밴드 휴먼레이스 결성 → 2012년 처음으로 록페스티벌에 참가 → 2013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스 오브 코리아2>에 단독 출연하여 파이널 진출 → 2014년 5월 정규앨범 발매 후 서울 2호선 전철역을 돌며 '괜찮아 프로젝트' 시작 → 버스킹 여행을 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담은 책 『괜찮아』 출간 → CBS TV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 → 현재 여행 커뮤니티 <여행대학>에서 강연하는 등 밴드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장래 포부** 노래, 이야기, 강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

- **더 알고 싶다면** 세바시 534회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괜찮아'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pRqsBj_PW0

윤성기

밴드 휴먼레이스 보컬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 국민은 슬픔에 빠졌고, 그로 인해 각종 페스티벌은 전부 취소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8월의 어느 날 밴드 ‘휴먼레이스’의 보컬 윤성기 씨는 기타를 둘러메고 같은 팀의 멤버 최민수 씨와 함께 지하철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주말을 제외하고 그는 매일 한 역씩 들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괜찮아’라는 노래를 불렀다. 홍대입구역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종착역인 신촌역에 닿기까지 두 달 반 동안 계속되었

다. 출판사의 제안으로 그는 버스킹 여행을 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아 단행본 『괜찮아』(넥서스BOOKS, 2015)를 출간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CBS TV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행 커뮤니티인 〈여행대학〉에서 강연을 맡기도 했다.

밴드의 보컬로서만이 아니라 강연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윤성기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음악가의 꿈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자신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그를 만나 보았다.

음악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저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친구였어요.

중학생 시절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성기 씨는 어떤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을 풀고자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과학자라는 꿈도 꾸게 되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이었다. 공부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과학고를 떨어지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제게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하나 없었죠. 가족에게서, 또 입시 실패에서 얻은 상처가 깊어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긴 방황을 하던 그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다. 이과였던 그가 자신의 점수에 맞춘 것이었을 뿐, 원하거나 흥미가 있어 선택한 전공은 아니었다. 내성적이었던 그의 성격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전에도 음악을 좋아했지만 실용음악 학원도 없고, 주위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없었던 때여서 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기타는 서점에 있는 관련 책을 보며 독학으로 공부했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음악은 저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때 이미 음악가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더 늦기 전에 제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음악을 시작했죠.

성기 씨는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기에 마음 놓고 음악가를 꿈꿀 수가 없었다. 혼자 기타를 연습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대학에 다니던 그는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전공한 컴퓨터공학 관련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던 컴퓨터공학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다음 일하는 장소로 이동하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바쁠 때도 있었지만, 당시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어서 힘들지는 않았다.

“돈을 벌면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나 책을 보며 노래를 연구했죠. 바쁘게 일하며 살다가 서른 살이 됐을 때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다가 마흔, 쉰에도 제 모습이 그대로일 것 같아 정말 두려웠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1년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죠.”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그가 집을 나오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고된 직장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던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어머니가 오른팔을 심하게 다치셨는데, 그의 수중에 병원비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에 절망했다.

“제 젊은 나날과 바꾼 절망스러운 결과에 참담했죠. 그때 저는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1년 동안 친구 집에 얹혀살며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노래하는 데 썼어요. 가족 걱정에 정말 힘들었지만, 괴롭고 힘든 기분마저도 노래로 표현하며 감정을 추슬렀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기쁨과 음악에 대한 절실함이 커졌던 시기였어요.”

1년 동안 노래하고, 또 1년 동안 밴드 보컬로 활동하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성기 씨는 집을 나와 노래를 연습하는 틈틈이 동영상 강의와 책을 통해 작곡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데모곡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멤버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휴먼 레이스’라는 이름의 밴드를 결성하여, 보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정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갈 무렵이었다.

“첫 무대에 섰을 때의 뿌듯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012년에는 처음으로 록페스티벌 메인 무대에 섰었는데,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할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밴드를 결성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이름을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밴드의 리더 민수 형이 제 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며, 저 몰래 오디션을 신청했어요. Mnet에서 방영하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2>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실력을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에 나갔다가 운 좋게 준우승까지 하게 되었죠.”

예상치 못한 그의 선전에 그의 지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그를 대견해 하시며, 좀 더 빨리 그의 재능을 발견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셨다. 노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스스로 들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예전처럼 돈을 버는 가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음악가의 길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밴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사람 관계였어요. 사실 드럼 멤버는 2번 바뀌었거든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 소통과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일이 잘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밴드를 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죠. 휴먼레이스는 2012년 첫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했고, 그동안 EP앨범 4장, 정규앨범 1장, 싱글 몇 곡을 발표해 왔는데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성기 씨는 부정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며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음악을 하다가도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질 때는 휴식을 취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그는 산책을 나갔다. 좋은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아갔다.

“흔히 100km를 가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나아갔다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만 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100km를 가는 내내 괴롭고 힘들기만 하다면 그 여정이 과연 좋은 여정인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해요. 저는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제 스스로를 심각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잘 쉬면서요.”

그는 산책을 통해서도 도저히 고민을 해결할 수 없으면 잠을 자기도 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책도 읽고 있었다. 요즘 고전 읽기에 푹 빠져 있다는 그는 책 속에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고 있다고 했다.

“고전에는 지금과 시대는 다르지만 보편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사랑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고, 또 그 문제들을 이미 한차례 검증하고 체계화시켜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제 스스로가 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살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을 동경하여 가수가 되기 위해 기획사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기 씨는 그러한 노력이 성공이나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남에게 강요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서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노래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에는 노래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거기다 예능감도 있어야 하고, 외모 역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에 휘둘러서 본질인 음악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실한 만큼 노력을 다하면 얼마든지 꿈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과학자를 꿈꾸었던 사람답게 성기 씨의 관찰하고 연구, 분석하기 좋아하는 성향은 음악을 하는 지금의 그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는 한 분야에서 뛰어나면 그만큼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인생의 롤모델을 두기보다는 스스로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 언제나 제가 주체가 되어 제 삶의 좋은 롤모델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래, 이야기, 강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요.”

문화
예술분야
1



06

올해로 3년째 청소년 뮤지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기획가

뮤지컬로 인해 행복해지고, 뮤지컬에서 꿈을 찾다



공연기획사 블랙필 대표

백승현

- **누구의 이야기?** 요리사에서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다가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만드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기획가

- **하는 일은?** 공연기획사 <블랙펄>을 운영하며 뮤지컬 교실을 통해 공연을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중학생 때 조리실습반에서 처음 요리를 배움 → 대학 입학 후 포기하고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 → 2년여 만에 요리사를 그만두고 5년 정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쌓음 → 건축을 공부할 생각으로 학점은행제를 신청하고, 작은 극단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 시작 → <보물섬>, <알라딘>, <어린왕자> 등의 작품을 공연하며 3년 정도 활동 → 고향 제천에 내려가 공연기획 관련 회사 <블랙펄>을 차림 → 현재 보은에서 청소년 뮤지컬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장래 포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 **그의 한마디** 기획자는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성공시키는 직업이다.

백승현

공연기획사 블랙필 대표



충북 제천에는 뮤지컬을 만드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공연을 올릴 때면 공연장은 600~700명 정도의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다. 관객의 대부분은 그들의 친구, 가족, 지인들이다. 관객들의 기대 속에 그들은 이른바 ‘망하는 공연’을 목표로 공연을 시작한다. 그들은 공연기획가이자, ‘블랙필’ 대표 백승현 씨가 운영하는 청소년 뮤지컬 교실의 학생들이다.

가족뮤지컬 배우 출신 백승현 씨는 성대결절로 인해 배우 생활을 접으면서 공연기획가가 된 사람이다. 고향 제천으로 내려간 그가 청소년 뮤지컬 교실을 연 이유는 뮤지컬을 통해 아이들이 꿈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뮤지컬 교실 출신 중에는 뮤지컬학파로 진학한 아이가 4명, 공연기획 전

공으로 진학한 아이가 1명이 있다. 뮤지컬 교실이 자신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백승현 씨의 지난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함께 맛보는 것이 좋아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중학생 시절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승현 씨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컴퓨터실습반에 들어가려다가 의도치 않게 조리실습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리실습반에서 첫 요리로 탕수육을 만들며, 그는 함께 팀을 이루었던 3명과 친구가 되었다. 맛있게 만든 요리를 친구들과 함께 맛보는 행복감에 취해 그는 그때 요리사라는 첫 번째 꿈을 마음에 품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새벽 3~4시에 일어나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가기도 했다.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점점 더 요리사라는 꿈에 확신이 생겼다. 그러던 중 수능을 망치게 된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그동안 꿈꾸어왔던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요리사를 시작한 그해 12월에 부주방장이 되었어요. 그때 제 목표는 요리명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을 겪게 되었죠.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돈가스 하나를 시켜놓고 아들만 먹고 있는 거

예요. 어머니는 이미 식사를 하고 오셨다고 했지만, 음식값이 비싸서 더 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그래서 제 사비로 돈가스를 사드렸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명장이 되면 음식값이 비싸지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요리사를 그만뒀어요.”

오랜 시간 꿈꿔온 요리사라는 꿈이 사라지면서 그의 방향은 꽤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을 찾기 위해 21살부터 26살까지 5년의 시간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데 썼다. 그러다가 건축에 관심이 생긴 그는 2년 동안 건축을 공부했고, 학점은행제로 바로 대학원에 들어갈 계획으로 4개월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1000만 원을 모았다. 7월에 신청하고 학기가 시작될 다음해 1월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잠시 놀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일거리를 찾던 그는 우연히 뮤지컬 배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게 놀다가 공부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지, 사실 전부터 노래나 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만지는 오퍼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일하다가 어느 날 배우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연출 선생님이 저에게 대본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읽었더니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셨고, 대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데뷔를 하게 되었죠.”

준비 없이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게 된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승현 씨는 가족뮤지컬 〈보물섬〉 공연으로 첫 무대에 올랐다. 그가 맡은 ‘해적’은 스토리 전체의 갈등을 만드는 캐릭터였다.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무대에 서는 즐거움을 알게 된 그에게 그런 부담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물섬〉 이후로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알라딘〉이라는 작품이었다. 〈알라딘〉에서 연출자의 추천으로 주조연급인 ‘자파’라는 악당마법사를 맡았던 그는 그때 처음으로 솔로곡도 불렀다.

“제게 익숙하지 않은 재즈곡인데다가 백댄서도 없이 혼자 춤을 춰야 하는 무대였거든요. 홀로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제 목소리와 몸짓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어색함이 용납되기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어요. 제 노력이 통했는지 두 번이나 기립 박수를 받았죠. 지금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갑작스럽게 뮤지컬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그는 배우로서의 기량을 닦을 시간을 가지지 못했었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보통 1시간 정도 연습할 만한 동작을 그는 3~4시간에 걸쳐 연습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습 장소에 도착해 미리 연습을 하곤 했다. 제일 막내이기도 했지만, 늘 일찍 오고 늦게 간다는 이유로 그가 연습실 열쇠를 가지고 다녔을 정도였다. 적어도 함께 무대에 오르

는 다른 배우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절 그의 다짐이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 유연성, 박자감, 센스 그리고 감정표현도 잘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 왔어요. 아직도 배우로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뮤지컬 배우에게 있어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뮤지컬 시장에서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견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특히 노래, 춤, 연기를 전부 해야 하는 뮤지컬 배우는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은 직업이었다. 해마다 뮤지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어선 것은 그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춤도 장르별로 잘 추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다 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캐릭터, 어떤 작품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캐스팅의 폭을 넓히려면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해요. 스펙트럼이 넓어야 배우로서 역할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성대결절이 와서 배우는 포기했지만, 뮤지컬이 좋아 기획 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어요.

뮤지컬 배우로 자리를 잡아가던 승현 씨는 자신이 소속된 극단의 대표로부터 공연기획 일을 제안 받았다. 그렇게 그가 처음으로 기획한 공연이 〈어린왕자〉라는 뮤지컬 작품이었다. 그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건축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세트를 설계했고, 작곡이 취미라는 이유로 음악 작업도 했고,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포스터 제작까지 맡았다. 거기다가 마케팅 계획도 세우면서 그는 전반적인 공연 준비에 매진했다.

“두 달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어요. 위액이 역류하면서 성대가 녹아 성대결절이 왔던 것이죠. 1~2 시간씩 무대 발성을 버티기에 무리가 있는 목 상태가 되었고, 게다가 목소리 톤이 바뀌어버려서 제가 맡아오던 캐릭터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지 3년 만에 배우 생활을 접어야 했죠.”

극단을 나온 그는 고향 제천으로 내려가 공연기획을 위한 〈블랙펠〉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청소년 뮤지컬 교실’을 열어, 제천 지역의 고등학교마다 직접 연락하며 아이들을 모았다. 처음에 학교 관계자들은 그런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학생들이 화려함에 이끌려 뮤지컬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가, 막상 경험해 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의 뮤지컬 교실은 뮤지컬 체험을 통해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

발한 것이었다.

“뮤지컬 공연에 동원되는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 공연 하나를 하는 데 동원되는 직업군이 평균 30~31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각자 원하는 분야를 신청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정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인원이 초과될 때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나가라고 하죠. '어차피 너희들은 대학교 잘 가서 뭐라도 할 거잖아.'라고 하면서요.”

60명의 아이들과 8주간 48시간 수업으로 한 편의 공연을 만들고 있죠.

승현 씨의 뮤지컬 교실은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 5일 수업이 되면서 수업시수가 부족해진 학교는 진도 나가기도 빠듯한 와중에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에게 따로 시간을 빼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 수업은 아이들을 위한 그의 배려이기도 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주말이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갈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제외하고 아무렇게나 부르라고 하는데

요. 오빠, 형, 선배님, 삼촌,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아이들과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수업 시간 외에 연습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허락 받고 저희 집에서 밤새 같이 연습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가끔 그는 작품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고는 자신의 역할을 기획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작품 제작의 모든 사항에서 별다른 지도나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전적으로 아이들 손에 맡겼다. 그러면 아이들은 연출팀을 꾸리고, 메이크업부터 헤어, 의상, 세트까지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두 달 동안 공연을 만들어갔다. 그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도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일단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나서야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그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선택을 아이들의 몫으로 돌렸다.

“제가 혼자서 아이들 60명을 관리하는데, 8주간 하루에 3시간씩 48시간을 수업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48시간 동안 연습해서 1시간 30분 짜리 공연을 올리는 것도 신기해 하시죠.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습해서 일요일에 공연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죠. 연습실이 따로 없어서 주말에 관공서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학생들과 ‘망하는 공연’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망하는 공연은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그가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아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이었다. 아이

들은 자기들만의 공연을 할 수 있어 즐거워했고, 그만큼 그의 프로그램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가끔 연습실을 찾아와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고 그는 말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저의 목표예요.

뮤지컬 기획가로 살아가며 승현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공부보다 먼저 몸소 체험하며 배우는 쪽을 선택했던 그는 자신에게 공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운영과 병행할 생각으로 그는 사이버대학을 등록했다.

“교육과정을 살펴봤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공연예술과 관련 있는 과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기로 하고, 차라리 회사라도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생각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일이 많아지면서 성적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휴학했는데, 내년에 다시 복학할 계획이에요.”

그는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위가 없다 보니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투자나 제작 요청을 할 때 자신을 표현할 수식어가 없었다. 그로 인해 제안서가 통과되지 않거나 투자나 제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이들을 위해 계획한 일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저는 학위나, 저를 표현할 수식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는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도 결심하게 되었고요. 국내의 경영대학원을 다닐지, 아니면 미국의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을지 고민하던 차에 ‘무크(MOOC)*’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영어 공부를 할 겸 틈틈이 무크를 통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는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기개발에도 열심이었다. 학벌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는 자신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살았던 혁명가 체 게바라처럼 아이들이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야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도전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니까요. 기획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획자는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성공시키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하버드대학이나 MIT,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등의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공개 강좌’를 말한다. 마지막 학기에 에세이를 쓰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료증을 보내주며, 국내 대학에서 그 수료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07

오랜 기자 생활 끝에 농부로 지리산에 정착한 사진작가

찰나의 순간을 담아 영원히 남기다



사진작가

이창수

- **누구의 이야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사진이라는 길을 깊고 다양하게 걸어온 사진 작가

- **하는 일은?** 지리산에서 차 농사를 지으며,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남기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밴드부원 선발에서 탈락한 후 검도부에 들어감 → 대학 입시 실패 → 재수생 시절 사진을 배우면서 동호회 활동 →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입학 → 졸업 전 중앙일보 출판사진부에서 인턴사원 → 대학 졸업 → 월간지 〈샘이깊은물〉, 국민일보, 〈월간중앙〉 등을 거치며 16년 동안 사진기자로 활동 → 2000년 지리산에 정착하여 현재 15년째 차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 **그의 한마디** 한 우물을 팔 때에도, 너비와 깊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창수

사진작가



숫기 없고 내성적인 성격의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검도를 배우며 강해졌다. 대학 입시 실패라는 인생의 첫 좌절을 경험한 직후에는 운명적으로 사진과 만났고, 놀이처럼 시작한 사진은 소년의 인생을 대표하는 중요한 하나의 조각이 되었다. 사진작가 이창수 씨의 이야기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월간지, 일간지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사진기자로 16년의 세월을 보낸 그는 마흔의 나이로 지리산으로 내려가 인생의 2막을 열었다. 지리산 자연 속에서 차 농사를 짓는 농부로, 렌즈 너머로 보이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작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진작가 이창수 씨를 만났다.



재수생 시절 사진을 배웠던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꾸어놓았어요.

창수 씨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형의 권유로 밴드부에 가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밴드부 담당이었던 음악 선생님은 어느 날 교실에 들어와 반 번호 50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의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키가 큰 학생을 중심으로 밴드부원을 선발하려는 것이었다. 52번이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금방 다시 자리에 앉아야 했다. 연주 실력 못지않게 걸모습도 중요한 밴드부원 선발 기준에 안경을 쓴 그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앉으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밴드부 가입을 포기할 정도로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

던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검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밴드부에서 떨어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 어디선가 고함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소리에 이끌려 가봤더니 검도부 애들이 한창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시선을 빼앗겨 잠시 보고 있는데, 검도부원이었던 중학교 동창생 하나가 다가오더니 검도부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검도부 훈련은 특별활동 수준이 아니었어요.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죠. 그러다 나중에는 검도부 주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검도에 집중했던 그는 대학교에서도 같은 운동을 전공할 생각이지만, 당시 검도 특기생을 뽑는 대학이 없었다. 그는 대학을 가기 위해 그 당시 종로 YMCA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운동을 배워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 지원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체육학과는 야구, 축구 등 다른 특기생이 이미 거의 다 입학이 전해진 상태에서 정원 중 약 5명 정도만 뽑는 경쟁률이 높은 과였다. 그렇게 그는 쓰디쓴 인생의 첫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대입 실패의 충격으로 운동에 흥미를 잃은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운동을 배우는 데 쓸 돈으로 사진반을 등록했다. 그는 형에게 카메라를 빌려 거리로 나갔고, 자신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온갖 포즈를 취하게 하며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어댔다. 즉흥적으로 한 선택이었지만, 사진을 배운 한 달의 시간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채수를 하면서 사진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는데, 공부보다는 놀이에 가까웠죠. 다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운동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때마침 중앙대학교에 사진학과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성적도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진학과에 들어갔죠. 입학해서는 정말 잘 놀았어요. 카메라 들고 예술가입네 하면서 술도 많이 마셨고요. 하지만 늘 제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그 속에서 여러 번 변화를 추구했죠.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을 끝내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창수 씨는 보름 동안 중앙일보 출판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출판국은 당시 <영레이디>, <여성중앙>과 같은 잡지를 만드는 곳이었다.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사진기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곳에서의 일은 주로 연예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연예인 촬영보다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싶었던 그였기에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창수 씨가 계속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샘이깊은물>이라는 잡지에서 그에게 사진기자 일을 제안한 것이었다.

“월급만 놓고 봤을 때 중앙일보가 백화점이면, <샘이깊은물>을 만드는 곳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선배들은 전부 말렸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샘이깊은물>로 갔죠. <샘이깊은물>은 잡지계의 교과서로 내용 면에서 완성도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일하며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민속, 무속, 자연 등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앙일보에서 일할 때보다 불안정하고 월급도 적었지만 그런 부분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잘 지냈고, 무엇보다도 일을 정말 재미있게 했으니까요.”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3년 만에 정든 <샘이깊은물>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는 선배를 따라 국민일보에서 만드는 일간지로 자리를 옮겼다. 일간지는 매일 마감을 해야 하기에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비하면 몇 배는 더 힘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경험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도전을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간지의 영향력이 정말 컸어요. ‘나 일간지 기자다.’하고 으스스대던 때였으니까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3년 정도 일하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을 지독한 긴장 속에서 마감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스카우트했던 선배가 그만두고 중앙일보로 간 지 보름 만에 결국 저도 2년을 채 안 하고 나왔어요. 신문사 사진기자로서 현장에서의 일은 정말 좋았어요. 그 당시는 민주화의 격변기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하루살이 마감과 조직 안에서의 갈등과 에너지 소모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쌓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스카우트했던 선배의 부름에 <월간중앙>이라는 잡지로

다시 한 번 자리를 옮겼다. 그때 그는 한번 출장을 가면 한 달의 절반은 외국에서 보낼 정도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며, 규모가 큰 사진 작품을 찍었다. 그는 ‘한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광개토대왕, 장보고, 대조영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흔적을 따라다녔던 일에 가장 큰 재미를 느꼈다. <월간중앙>에서 그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일이 재미있어서였다.

“돌이켜보면 계속 사진 찍는 일을 해왔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번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월간지를 시작으로 일간지도 해보고 다양한 어린이 사진책도 만들고 나니 이제 할 만큼 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중앙>을 마지막으로 사진기자 생활을 접었죠. 제 삶에 다시 한 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사진은 제 인생의 수단이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가 막 시작될 즈음 창수 씨는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 시대로 변화할 것을 예상했다. 그동안 도시에서 살아온 그는 그전부터 시골에서 아날로그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30대 때에는 강원도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나이 들면 시골에 가서 살 생각으로 강릉에 땅을 사기도 했었다. <쌈이깊은물>에서 일하던 시절에 차를 즐겼던 그는 마흔이 되던 2000년 차 농사를 짓기 위해 지리산으로

내려갔다.

“〈월간중앙〉에서 일하던 시절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시골로 내려가 뭔가를 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깊어지던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차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리산으로 내려간 것도 차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시골 생활을 꿈꾸며 강릉에 땅을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농사를 지을 생각까지는 없었었다. 사진작가로 일하다가 휴식이 필요할 때면 쉴 겸 내려가 사진을 찍으며 지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는 사진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렇게 그는 흙을 만지는 일, 농사를 짓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지리산에 내려올 때 저는 ‘살러 가.’ 하지 않고, ‘죽으러 간다.’고 했어요. ‘살러 가는 것’과 ‘죽으러 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죠. 지리산에 내려오고 처음에는 사진도 내려놓았어요.”

사진을 놓아보니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더욱 좋은 눈을 가지게 되었죠.

다큐멘터리 사진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창수 씨는 정작 지리산에 내려가고 나서는 몇 년 동안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물론 아예 사진 자체를 찍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진작가로서 찍을 법한 작품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셔터를 누른 적은 없었다. 그가 작품사진에서 손을 놓았던 이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사일에 바쁜 나날을 보내서만은 아니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한 그가 모든 대상을 사진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 5년쯤 지나니 눈앞에 있는 대상들이 본모습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바위가 바위로 보이더라고요.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었죠. ‘아, 이것이었나?’ 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었죠. 물론 필름카메라를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기보다 눈앞에 있는 대상과 놀다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셔터를 눌렀어요.”

그는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경험을 하며 자연과 자신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카메라를 손에서 놓았던 5년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 고단한 농사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은 그와 그의 사진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한 우물을 열심히 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열심히 파라. 그럴수록 뒤돌아볼 하늘은 작아진다.’ 뒤돌아봤을 때 하늘은 무조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팔 때에도, 너비와 깊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파야 하죠. 뒤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보이는 하늘이 좁다면, 그때는 넓게 파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깊게 파고, 또 자신을 돌아본 다음엔 넓게 파고, 그러다 보면 늘 온전한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깊이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자기 동굴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하늘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세 번의 경험들이 있어요.

창수 씨는 지금껏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면 언제나 자신에게 그 기준을 두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좇아 살아가다 보니 지금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 권위, 물질 등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지리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산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그에게는 지리산행을 결정한 것 외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대학 시절 떠났던 무전여행이었다. 그가 대

학생이었던 1984년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때였다.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여권을 만들어 유럽으로 향했다. 두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다. 두 번째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히말라야 14좌 베이스를 가다” 사진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다. 그는 700여 일에 걸쳐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14개 봉우리의 베이스캠프를 돌며 설산의 내면과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140여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수평선이 바다의 끝으로 보이죠. 거기까지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겠지만 그 너머에도 끝없이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수평선을 향해 한발 한발 더 나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나올 거예요. 딱 한 발을 내딛으면 한 걸음 너머가 보일 것이고, 열 걸음 더 걸어 나가면 그만큼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걸어가서 보았느냐가 내가 보는 세상의 크기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이 어디든 어느 방향이든 본인이 원하면 끊임없이 걸어가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08

사람들의 닫힌 생각과 감각을 열어주길 꿈꾸는 예술가

세상 사람 모두를 예술가로 만나다



소프트 유니브 대표

류재훈

- **누구의 이야기?** 사람들과 예술(가) 사이의 거리를 좁혀 더 건강한 나와 공동체를 꿈꾸는 문화예술창작 교육원 <소프트 유니브>를 창업한 예술가

- **하는 일은?** 형식적인 배움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수업(콘텐츠)이 아닌, 고유한 나의 느낌으로부터 시작하는 자기표현 경험으로서의 창작 수업(콘텐츠)과 환경을 예술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람 → 고교 시절 미술부 활동 → 단국대학교 서양학과에 진학했다가 1년 반 만에 중퇴 → 프랑스 유학 → 귀국 후 유학미술학원 강사 생활 → 순수창작 예술대학을 지향하며 <소프트 유니브> 창업 → 학교, 지방 문화재단 등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상대로 드로잉 워크숍, 창작 강연 등의 활동 중

- **장래 포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 **그의 한마디** 실패와 좌절은 우리가 살아가며 늘 할 수 있는 과정이며 권리이다.

- **더 알고 싶다면** <소프트 유니브> 홈페이지 www.softuniv.com
<소프트 유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ftuniv>

류재훈

소프트 유니브 대표



“세상에 예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술가가 백 명이면 우리는 백 개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좋아한다는 예술가 류재훈 씨는 세상 사람 모두가 각자 고유한 존재이며 예술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외치는 사람이다.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구조 속에 갇혀 남의 눈치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실생활 속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순수창작 예술대학 〈소프트 유니브〉를 만들어 활동 중인 재훈 씨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예술과 사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재훈 씨는 화가인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 옆에서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음악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들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그는 그림도 곧잘 그렸지만 딱히 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은 고등학교 미술반에 들어가며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술반보다도 우연히 펼쳤던 미술책 속의 작은 그림들이 발단이었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그림, 미켈란젤로 다비드 상의 사진 등 조그만 그림들이 그에겐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후 미대 진학을 선언한 그에게 어머니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셨지만, 화가인 아버지는 그를 보이지 않게 응원해 주셨다.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 부모님은 취업이 편한 디자인 쪽을 추천하셨죠. 하지만 제 관심 분야는 순수 미술이었고, 한 번쯤은 순수 미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 몰입하는 데에 대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단국대학교 서양학과에 진학했고, 미학연구 동아리에도 들어갔다.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혼자서라도 적극적으로 빠져들었다. 미학연구 동아리에서 강사, 선배들과 나누는 예술과 철학 토론 문화가 좋았던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술로 가득했다.

“한 학기 다니고 군대에 다녀온 뒤 복학해서 1년을 더 다녔죠. 예술에 심취해 혼자 포스터를 붙이고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어요. 벽에다가 문을 그리고 그 문을 나가려는 사람을 표현하는 자학적인 행위예술이었죠.”

대학을 중퇴하고 떠난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죠.

미학과 예술 철학의 텍스트에 빠져 있던 재훈 씨는 대학을 중퇴하고 1999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프랑스에 유학을 간 선배들을 보며 한국 대학에서의 생활비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설득해 떠난 프랑스에서 그는 8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지켜 본 프랑스는 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서도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프랑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잘 녹아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죠. 유학을 가기 전 한국에서 배웠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더불어 타인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 개인주의더라고요. 개인을 위해 조직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컸어요.”

본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생활에 제약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일들이었다. 약 8년 반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선 버스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잡아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없었죠. 사람들 사이의 경계심도 너무 크고, 문화적으로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죠.”

〈소프트 유니브〉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배움을 추구해요.

2007년에 한국에 돌아온 재훈 씨는 유학미술학원에 강사로 취직했다. 외국 미술학교의 학생 선발 기준은 규율화된 한국 입시미술과는 달랐기에 그는 자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미술 강사로서 아이들을 만나 즐겁게 수업을 하고 그림도 그리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그는 자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학원에 제안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굳이 그러한 시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학원 측의 반응에 그는 스스로 창업을 결심했다.

“시기가 잘 맞았어요. 아이들이랑 미술을 하며 얻은 경험으로, 그리기를 통해 이런 것을 하면 사람들에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인적인 드로잉 강의 콘텐츠도 만들었고,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같은

1인 창업 책, 아이툰즈라는 새로운 생태계 이야기, TED 같은 것을 통해 무언가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풍부한 시기였거든요.”

사업자를 등록한 뒤, 자신이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그에게 2012년 시청에서 오픈한 코워킹 스페이스 <스페이스 노아>*는 큰 도움이 되었다.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그는 성공이라는 단순한 목적 자체가 아닌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다양한 곳에서 그가 추구하는 예술 경험 공유 수업들을 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리기’라는 드로잉 워크숍을 시작해 성균관대학교 다산창의력센터에서의 드로잉 창의력 워크숍, 경기도 양정여고에서의 학교 안 예술학교 기획 및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창작 수업, 군포문화재단에서의 창의력 수업 등 10대부터 80~90대의 어르신들에게 이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는 예술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각자의 표현이 실제 그들이 사는 공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며, 그는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본인의 순간적 즐거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구호 중에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배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수직적 관계에서 배우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처음부터 자신을 창작자로 인식하여 예술가(강사)들과 수평적으로 만나고 관계하며 자신만의 배움을

* 사회혁신기들의 지식 공유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코워킹 사무실. www.spacenoah.net

이루어 나가길 기대했어요. 우리는 예술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무지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나오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술이 예술로, 예술가가 예술가로 될 수 있는 근거는 재능이나 천재성이 아닌 고유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술가인 거죠. 창작(표현)은 고유한 우리 모두의 권리인 것이죠.”

실패와 좌절은 우리가 살아가며 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재훈 씨는 사회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 피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패를 경험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꾸려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되면 감정적으로 좌절해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좌절해도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스페이스 노아 코워커 김용석 선생님(『파워포인트 블루스』 저자이자 유명한 강사인)이 코워커들에게 자신의 공개 강의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경험도 없고, 겁도 많고, 사람들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도 맨 처음 하겠

다고 했었죠. 잘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일지 너무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엉망이 되었고 좌절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좋았던 경험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자기가 강하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중요해요.”

문화예술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는 재능이 아닌 관심사를 좇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와 학생이 재능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려는 생각이 강하고, 사람들은 자기 재능 위주로 방법을 찾다 보면 자꾸 무엇이 정답인지 답을 찾으려 한다. 정해진 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은 배제한 채, 정확한 정보와 이미 성공한 사람의 사례 등을 찾아 그것에 자신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능은 무척 입체적인 반면, 직업이란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것의 반복이기에 그는 직업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발휘되는 경험은 무엇이든 본인에게 재산이 된다.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자기 이해와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최종 목표는 단순하지만 모두가 같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행복하려면 일단 자기 행복이 중요해요. 저는 비슷한 걸 몽쳐서 거대한 하나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수없이 쪼개서 완전히 각각의 자기 색깔이 나

온 뒤에, 그 상태에서 다시 모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과 같이 그림
을 그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놀랍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자기가 자기로서 존재하고 관계하고 행복한 것. 그것이 제 목표예요.”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문화
예술분야
1

만든 사람들

기획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문승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이영선

생애진로개발연구소

대표

양안나

위즈돔

대표

오윤덕

캠퍼스멘토

대표

안광배

집필

김지은

유민정

이단비

자문

라이스메이커

대표

민영범

SADI

교수

김명진